

가마쿠라 시대의 전투와 신비현상*

이 세 연**

[초 록]

본 논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전투에 즈음하여 나타난 신비현상을 검토하여 중세 무사들의 정신세계에 한 발 더 다가서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투의 성격과 신비현상의 연관성, 동국(東國) 고실(故實)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했다. 가마쿠라 무사들은 전투의 성격에 따라 신비현상이 차별적으로 출현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공전(公戰)과 ‘성전’(聖戰), 사전(私戰)이 기준선이 되었는데, 공전과 사전의 경우 형식 못지않게 전투의 실태가 중시되었다. 형식과 내용을 고루 갖춘 공전, 그리고 ‘성전’에서는 저명한 신들의 신이가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형식과 내용면에서 사전임이 명백했던 전투에서는 신비현상의 로컬화라 할 만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공전과 사전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전투에서는

* 본 논문은 중국고중세사학회 제17회 학술대회(2020.9.19., 온라인)에서 구두 발표한 「鎌倉時代の戦闘과 神祕: 『吾妻鏡』를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가마쿠라 막부, 아즈마카가미, 전투의 성격, 신비현상, 균형감각, 동국의 고실
Kamakura Bakufu, Azumakagami, Nature of Battles, Mysterious Phenomena, Sense of Balance, Ancient Practices of Togoku

색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의 면모가 강했던 공전, 즉 오슈[奥州] 전투에서는 지역색 짙은 신비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역의 내란에 접속된 까닭에 공공성을 강하게 표방했던 1180년대 초반의 사전에서는 저명한 신들의 신이가 출현했다. 한편 동국에 거점을 두는 강력한 정치권력의 출현과 장기지속은 동국의 신비현상을 구전의 세계에서 기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신비현상에 관한 동국의 독자적인 고실은 막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오슈 전투를 기억의 원점으로 삼아 형성되어갔다.

1. 머리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다.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판타지 영화로, 시리즈 세 편 모두 기록적인 흥행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마지막 편인 《왕의 귀환》에는 사우론 휘하의 오크 군대에 맞서 인간 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오크 군대가 인간들을 압도해가던 순간, 전투에 앞서 종적을 감췄던 인간 전사 아라곤이 유령군사들을 이끌고 참전한다. 유령군사들의 참전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전투는 인간들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그야말로 판타지 영화에 어울리는 황당무계한 전개라 할 수 있지만, 전투와 신비현상의 결합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예컨대, 중세 일본인들에게 전투는 인간의 행위만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종의 부자연스러운 현상으로부터 전투의 발발을 예견하고자 했으며, 전투의 외중에는 신불(神佛)의 조화(造化)를 간취하고자 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도우노미네데라[多武峯寺]에 안치된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 목상의 파열은 1051년 이후 동북지역에서 전개되는 장기 전투를 예견한 징조로 기록되었으며,¹⁾ 간무[桓武]

천황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장군총(將軍塚)의 명동(鳴動), 즉 크게 울리고 흔들리는 현상은 1156년 교토에서 전개된 대규모 시가전을 암시한 징후로 기억되었다.²⁾ 또 1419년 여름 대마도를 공략하던 이종무 휘하의 조선군은 우박을 동반한 갑작스런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홀연히 나타난 여성 대장 — 다분히 신으로 상정되는 — 의 공격을 받아 패주한 것으로 일본사회의 일각에서는 인지되고 있었다.³⁾

근대적 시각에서 신비현상을 비판하고 일축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인 이상, 신비현상이 역사학의 주요 검토대상의 하나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신비현상은 인간의 상상력과 심성의 일단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신비현상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심리의 심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공식 연대기인 『吾妻鏡』를 소재로 삼아 중세 초기의 전투와 신비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례 없는 무사정권에서 생산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중세의 전투와 신비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그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이 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투의 성격과 신비현상의 관계이다. 전투에 관한 중세 사료를 검토해 보면, 중세 무사들이 전투를 차별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한 기준점은 조정에서 발급한 추토선지(追討宣旨) 혹은 원선(院宣)이었다. 상세한 예시는 생략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 1) 『先代破裂集』, 朝倉弘(1995), 「平安時代の多武峯寺と興福寺: 対立・抗争について」, 『奈良大学紀要』 23, 奈良: 奈良大学, p. 7 참조.
- 2) 『保元物語』 上 「將軍塚鳴動並びに彗星出づる事」.
- 3) 『看聞日記』 1419년 8월 13일조 참조. 이하, 사료 등의 <연/월/일> 표기는 <양력/음력/음력>의 방식으로 함(음력은 일본의 역법에 따른 것임).

전투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자 추토선지와 원선을 갈구하던 중세 무사들의 움직임은 이 점을 상징한다. 중세 무사들이 차별적으로 인지한 두 가지 전투, 즉 조정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를 지닌 전투와 그렇지 않은 전투[‘私合戰’]는 각각 공전(公戰), 사전(私戰)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전과 사전이 중세의 전투를 양분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중세에는 공사의 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전투도 존재했다. 예컨대 가마쿠라 무사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조큐[承久]의 난, 여몽연합군과의 전투 등은 공전으로도 사전으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전투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실의 조상신에 대한 기대감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전투를 ‘성전’(聖戰)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가마쿠라 무사들은 공전, 사전, ‘성전’이라는 전투의 성격에 따라 원령(怨靈)의 진혼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⁴⁾ 이 같은 연관성이 전투와 신비현상 사이에도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신비현상 사례의 집적과 관리이다. 고대 이래로 모종의 신비현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정치권력은 점을 치거나 선례를 살펴보며 그 의미를 해독하는 데 부신했다. 가마쿠라 막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마쿠라 막부가 전례 없는 무사정권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막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새로운 선례들이 쌓여가는 상황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본문에서는 이 점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중세사회에서 관찰되는 신비현상은 대략 신이(神異)와 괴이(怪異)로 양분할 수 있다. 사료 상 ‘神變’으로도 표현되는 신이는 신과 부처의 조화를 의미하며, 괴이는 명동이나 동물의 비정상적인 죽음, 바닷물의 적화(赤化)와 같은 이변을 뜻한다.

4) 이세연(2014), 「일본 중세무사들의 원한과 화해」, 『일본사상』 27, 한국일본사상학회 참조.

『吾妻鏡』에 보이는 신비현상은 종종 분석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개 괴이가 다뤄져왔다.⁵⁾ 일찍이 꿈 이야기와 탁선(託宣)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신이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연구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吾妻鏡』의 성립과 편찬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⁶⁾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이와 괴이를 신비현상이라는 맥락에서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투에 즈음한 중세 무사들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요 소재로 다루는 『吾妻鏡』은 1300년 무렵에 성립한 편찬물이다.⁷⁾ 따라서 수록 기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도 필요에 따라 다소의 사료 비판을 시도하겠지만, 신비현상에 관한 기사들이 당대의 것인지, 후대에 삽입된 것인지 혹은 일부 윤색과정을 거친 것인지 일일이 검증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주제의 특성상 세밀한 고증작업은 소모적일뿐더러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특정 기사가 당대의 것이든 후대의 것이든, 혹은 일부 윤색된 것이든 가마쿠라 무사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물질 토대 하에서 인간의 심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일종의 시대정신을 형성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5) 谷口榮(2007), 「鎌倉を取り巻く生き物たち」, 『吾妻鏡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山田雄司(2009), 「鎌倉時代の怪異」, 『怪異学の可能性』(東アジア怪異学会 著), 東京: 角川書店; 王玉玲(2012), 「『吾妻鏡』災異記事の編纂方針及び意義」, 『創価大学人文論集』 24, 東京: 創価大学; 池田浩貴(2015), 「『吾妻鏡』の動物怪異と動乱子兆」, 『常民文化』 38, 東京: 成城大学常民文化研究会; 池田浩貴(2016), 「『吾妻鏡』における八幡神使としての鳩への意味付け」, 『常民文化』 39, 東京: 成城大学常民文化研究会. 단, 이케다[池田]의 2016년 논문은 신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6) 青木孝(1968), 「吾妻鏡の成立に關する一試論: 夢想告・託宣の記事をめぐって」,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22, 東京: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

7) 『吾妻鏡』의 열거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남기학(2017), 「『아즈마가가미 吾妻鏡』은 어떤 사서인가?」, 『가마쿠라 막부 정치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2. 공전, ‘성전’과 신불(神佛)의 개입

2.1. 두 갈래의 공전과 신이

가마쿠라 시대의 첫 장을 장식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내란이다. 1180년 모치히토왕[以仁王]의 거병으로 시작된 내란은 이후 약 10년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유일무이한 무사정권으로 자리 잡고, 일본사회는 바야흐로 분권의 시대로 접어든다.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면 1180년대의 내란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180년 8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거병하여 반란군의 입장에서 다이라[平] 가문에 맞선 시기, 둘째 1183년 10월 요리토모가 동국(東國) 경영에 관한 선지(宣旨)를 획득하고 이후 관군의 입장에서 다이라 가문의 토벌에 나선 시기, 셋째 1185년 3월 다이라 가문의 멸망 이후에도 막부가 전시체제를 유지하고 1189년 오슈 후지와라[奥州藤原] 가문에 대해 대규모 전투를 감행한 시기이다.

위의 세 단계에서 막부군이 전개한 전투의 성격은 공전과 사전으로 양분된다.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대의 공전과 사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정에서 발급하는 추토선지 혹은 원선의 소지 유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계의 전투들은 사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전투들은 공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공전에 즈음하여 나타난 신비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吾妻鏡』에 보이는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료 1> 『吾妻鏡』 1184년 1월 23일조

히타치국[常陸國] 가시마사[鹿嶋社] 네기[禰宜] 등이 사자를 가마쿠라에 보내와 아뢰기를 “지난 19일 사승(社僧)이 꿈을 꾸고 이

르기를 “이곳의 신은 요시나카[義仲]와 다이라[平] 가문을 추별하기 위해 교토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동(同) 20일 술시에 검은 구름이 보전(寶殿)을 뒤덮어 사방이 모두 암흑 같았습니다. 어전(御殿)이 크게 진동했으며 사슴과 닭이 많이 군집했습니다. 잠시 후 그 검은 구름이 서쪽으로 뺏였으며 닭 한 마리가 그 구름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들어본 바가 없는 기서(奇瑞)입니다.”라고 했다. 무위(武衛)께서 이를 들으시고는 곧 어탕전(御湯殿)에서 뜰로 내려가 멀리 그 신사 쪽을 향해 절하시고 흠양하시는 성심을 더하셨다고 한다. 그 시각에 교토와 가마쿠라에는 모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1184년 1월 요리토모의 명을 받은 미나모토노 노리요리[源範賴] 등이 요시나카[義仲]를 추토하기 위해 교토로 진격했다. 요시나카는 1월 20일 교토 남쪽 우지가와[宇治川] 유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한 후 호쿠리쿠[北陸] 방면으로 퇴각하던 중 아와즈[粟津]에서 최후를 맞이했다.⁸⁾ 이후 교토를 장악한 막부군은 관군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다이라 가문 추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위의 사료에 보이는 가시마사의 신비현상은 교토 진공의 결과가 아직 가마쿠라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보고되었다. 전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요리토모 등에게 가시마사에서 관찰되었다는 신비현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가시마사는 927년에 1차 성립한 『延喜式』 「神名帳」에서 명신제(明神祭)가 펼쳐지는 이른바 명신대사(明神大社)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이후 히타치 지역을 대표하는 신사, 즉 일궁(一宮)으로 번창했다. 가시마는 당시 유력한 군신(軍神)의 하나로도 숭앙되고 있었다.⁹⁾ 요컨대, 전국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지역

8) 『百鍊抄』 1184년 1월 20일조.

9) 예컨대, 1169년 무렵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梁塵秘抄』에는 “관동의 군신, 가시마[鹿島], 가토리[香取], 스와궁[諏訪宮]”이라고 보인다. 중세의 군신 전반

신이 신비현상을 통해 전투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요시나카 몰락의 소식은 1월 27일 가마쿠라에 전해졌다.¹⁰⁾ 요리토모는 요시나카의 몰락이 가시마신의 개입에 힘입은 바 크다고 인식했다. 예컨대, 1184년 2월 교토[京都]의 조정에 보낸 건의서에서 요리토모는 가시마 대명신(大明神)이 교토로 향했다는 풍문이 돈 이후 적도가 추토되었다며 이로써 ‘神戮’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¹¹⁾ 또 같은 해 12월에는 요시나카의 몰락과 뒤이은 이치노타니[一ノ谷] 전투 승리가 가시마신의 ‘嚴重神變’에서 비롯되었다며 가시마사의 신관들에게 포상하고 신사에 토지를 기진했다.¹²⁾

한편 1185년에 접어들면 일본열도 서쪽의 유서 깊은 신사에서도 신비현상이 나타났다. 스미요시[住吉]의 신관 쓰모리 나가모리[津守長盛]는 2월 16일 항례의 봉납 가무가 펼쳐지던 중에 명적(鳴鑼)이 제3신전으로부터 나와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조정에 보고했다.¹³⁾ 스미요시는 일찍이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전설에 등장하는 등 고래로 군신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¹⁴⁾ 따라서 다이라 가문이 옮겨하고 있던 서쪽을 향해 스미요시의 ‘명적’이 날아갔다는 신사 측의 보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다만, 이 신비현상이 가마쿠라에 전달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며, 『吾妻鏡』의 편찬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후대에 삽입된 일화라 하더라도, 다이라 가문을 추토하기 위한

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佐伯真一(2014), 「「軍神」(いくさがみ)考」,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82, 千葉: 国立歴史民俗博物館.

10) 『吾妻鏡』 1184년 1월 27일조.

11) 『吾妻鏡』 1184년 2월 21일조.

12) 『吾妻鏡』 1184년 12월 25일조.

13) 『吾妻鏡』 1185년 2월 19일조.

14) 岡康史(2011), 「住吉大神のご神格: 「軍神」を中心に」, 『神道史研究』 59(2), 伊勢: 神道史學會 참조.

전투가 스미요시의 지지 하에 전개되었다는 인식이 적어도 13세기의 가마쿠라 무사사회에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동서의 유사 깊은 신들이 전투에 개입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는 가운데, 1185년 3월 단노우라[壇ノ浦]에서 다이라 가문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전후에 가지와라 가게토키[梶原景時]가 요리토모에게 제출한 전투결과보고서에는 갖가지 신비현상들이 적혀 있었다.

<사료 2> 『吾妻鏡』 1185년 4월 21일조

… 서해에서 전투를 할 때 길서(吉瑞)가 많았습니다. (무위의) 평안을 미리 신명(神明)이 상서를 통해 내보인 바입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우선 3월 20일 가게토키의 부하인 가이하타 시게미쓰[海太成光]의 꿈속에 정의(淨衣)를 입은 남자가 다테부미[立文]를 받들며 다가왔습니다. 이는 이와시미즈[石清水]의 사자라 여겨 펼쳐보니 다이라[平] 가문은 미일(末日)에 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미일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승부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과연 꿈속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②또 야시마[屋嶋]를 공략할 때 전장에는 아군의 군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만의 군세가 환영으로 출현하여 적군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③다음으로 재작년 나가토국[長門國] 전투 시에 큰 거북이 한 마리 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상에 떠 있다가 나중에는 물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바닷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미카와국 장관[參河守]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섯 명의 힘으로도 들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껍질을 벗기자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에 앞서 꿈속의 계시가 있었고 문득 이런저런 생각 끝에 미카와국 장관께서 제지하셨고, 거기에 더해 서간을 매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이시[平氏]의 최후에 임하여 그 거북이 다시 겐지[源氏]의 뱃머리에 떠올랐습니다<서간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 ④다음으로 흰 비둘기 두 마리가 배의 지붕 위를 선회했습니다. 그때 헤이시의 주요 인물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⑤다음으로 스오국[周防國] 전투 시에 흰 깃발이 하나 허공에 나타나 얼마간 아군 군사의 눈앞에 보였으며 마침내 너른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원정에 나섰던 가게토키는 그간의 신비현상을 총괄하고 있다. 가게토키가 열거한 신비현상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②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고, ③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흥미롭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①과 ④이다.

①에서 가게토키 휘하의 시게미쓰는 이와시미즈 하치만궁[石清水八幡宮]에 관한 영몽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未日’은 물론 단노우라 전투가 ‘丁未’일에 벌어졌다는 점을 환기한다.

헤이안[平安] 시대 이래로 이와시미즈 하치만궁은 이세신궁[伊勢神宮]에 버금가는 종묘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미나모토[源] 가문의 조상신으로도 숭앙되고 있었다.¹⁵⁾ 후자를 상징하는 것은 가마쿠라의 도시설계이다. 요리토모가 가문 대대로 인연이 깊었던 가마쿠라에 거점을 형성한 후 ‘궁성’이 배치될 자리에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 하치만궁을 조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조성된 쓰루가오카 하치만궁[鶴岡八幡宮]은 요리토모의 종교행위를 매개로 가마쿠라 무사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갔다.¹⁶⁾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5) 헤이안 시대 미나모토 가문의 하치만 신앙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義江 彰夫(1995), 「源氏の東国支配と八幡・天神信仰」, 『日本史研究』 394, 京都: 日本史研究会.

16) 江部陽子(1969), 「鶴岡八幡宮發展の三階梯と源頼朝の信仰」, 『神道学』 63, 島根: 神道学会. 에베는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의 발전과정을 <①요리토모의 우지 [氏] 신사 → ②가마쿠라도노[鎌倉殿]의 수호사 → ③막부의 수호사>의 3단계로 도식화했다.

①의 신비현상은 미나모토 가문의 조상신이 후손인 요리토모의 전투를 가호할 것이라는 혹은 가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마쿠라 무사들의 집단심성에서 비롯된 신이로 판단된다. ④의 신비현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비둘기는 하치만의 사자로 인식되었던 동물이기 때문이다.¹⁷⁾ 요컨대, 단노우라 전투는 시종일관 하치만의 가호 하에 진행된 전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비현상이 개입된 단노우라 전투에서 다이라 가문이 멸망하자, 조정은 전사자 추도 등 전후처리에 부심하며 평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했다. 그러나 막부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막부는 동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할 요량으로 오슈 후지와라 가문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¹⁸⁾ 1189년 막부는 마침내 동북지역으로 진공하여 오슈 전투를 감행했다. 이 전투와 관련하여 『吾妻鏡』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신비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사료 3> 『吾妻鏡』 1189년 8월 8일조

… 오늘 이른 아침에 가마쿠라에서 센코님[專光房]이 이품(二品)과의 아름다운 약속에 따라 (이품) 거처의 뒷산에 기어올라 절을 짓기 시작했다. 우선 맨땅에 임시 기둥을 네 개 세우고 관음당이라고 이름 붙였다. 출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꿈속의 계시에 따라 이와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영을 시작한) 시각이 자연스레 아쓰카시아마[阿津賀志山]의 전투 개시 시간과 일치했다. 기특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요리토모 휘하의 막부군은 1189년 7월 19일 오슈 원정길에 나섰다. 요리토모는 출발에 앞서 이즈산[伊豆山]의 승려 센코를 불러 자신의 염지불(念持佛)인 정관음상(正觀音像)을 본존으로 하는 법당을 조성

17) 池田浩貴(2016) 논문을 참조.

18) 川合康(2004), 『鎌倉幕府成立史の研究』, 東京: 校倉書房, p. 165 이하를 참조.

하고 승전을 기원하라고 명령했다.¹⁹⁾ 아마 여정을 감안한 지시였겠지만, 요리토모는 출발 후 20일째 되는 날에 조영을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시행된 역법으로는 7월이 29일까지 있었고, 따라서 출발 후 20일째에 해당하는 날은 8월 10일이었다. 센코는 모종의 계시를 얻어 기일보다 이틀 앞당겨 조성을 시작했는데, 그 날짜와 시각이 신묘하게도 오슈 전투의 개시 시각과 일치했다고 <사료 3>은 설명하고 있다. 『吾妻鏡』에는 확실히 아쓰카시야마 전투가 8월 8일의 ‘이른 아침’인 묘시, 즉 오전 6시경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吾妻鏡』에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지만, 오슈 전투는 요리토모의 염지불인 정관음상의 가호 아래 전개되었다는 인식이 막부 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슈 전투에 불력(佛力)이 작용했다는 인식의 존재는 간조주인[願成就院]의 사례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吾妻鏡』에 따르면 요리토모는 출진에 앞서 오슈 전투의 승리를 기원하고자 이즈국에도 사찰을 건립하도록 명령했다.²¹⁾ 이에 호조 도키마사[北條時政]는 나라야마[葦山] 호조[北條]에 간조주인을 조영했는데, 1189년 연말에 돌연 같은 이름의 편액, 즉 ‘願成就院’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편액이 사찰 부지 내에서 발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吾妻鏡』에는 “무릇 위 사찰은 야스히라 정벌의 성공을 기원하여 호조님께 서 처음 열었다. 군당의 역란은 신속히 서슬 시퍼런 칼에 제압당하고 양국(兩國)은 안정되었다. 모두 정성스런 기원과 같았다. 사호(寺號) 또한 마음속 기원이 불러일으키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해 두었는데, 거듭하여 지금 한 글자의 틀림이 없이 자연스런 길조가 나타났으니 아름답게 손질하여 당사(當寺)의 편액으로 사용하셔야 한다고 했다.”라고 보인다.²²⁾ 센코의 일화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오슈 전투의 승전이

19) 『吾妻鏡』 1189년 7월 18일조.

20) 『吾妻鏡』 1189년 8월 8일조.

21) 『吾妻鏡』 1189년 7월 18일조.

불력에 의해 이미 예기되어 있었다는 사후 인식은 확실히 막부 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슈 전투와 관련된 신비현상에서는 불력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지만, 사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면 오히려 다른 측면이 눈길을 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가시마, 스미요시, 하치만 등 전국적으로 저명한 신들이 등장했지만, 오슈 전투에 즈음해서는 그런 신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슈 전투의 신비현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의 성물(聖物)을 매개로 등장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후술하는 사전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역시 전투의 성격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판단된다.

오슈 전투가 공전이라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지만,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반쪽짜리 공전이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막부는 애초에 조정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전투를 강행했으며 조정은 뒤늦게 추토선지를 발급했다. 추토선지는 전투가 일단락된 1189년 9월 9일 요리토모의 군진에 도착했다.²²⁾ 발급일은 막부군이 오슈 원정에 나선 7월 19일로 소급되어 있었지만, 그간의 전투가 사전으로서 수행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오슈 전투는 시종일관 11세기 동북지역에서 펼쳐졌던 전쟁을 재현함으로써 미나모토 가문의 장군과 동국 무사간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다.²⁴⁾ 오슈 전투가 막부 내에서 ‘사사로운 묵은 원한’을 해소한 사전으로 기억되어갔던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²⁵⁾

22) 『吾妻鏡』 1189년 12월 9일조.

23) 『吾妻鏡』 1189년 9월 9일조.

24) 入間田宣夫(1998), 「鎌倉武士団における故実の伝承: 「過去」の支配をめぐる」, 『中世武士団の自己認識』, 東京: 三弥井書店; 川合康(2004)에 수록된 「奥州合戦ノート: 鎌倉幕府成立史上における頼家故実の意義」를 참조.

이처럼 오슈 전투가 ‘사사로운 목은 원한’을 해소하는 전투였다면, 신비현상이 공공성을 담보하는 유서 깊은 신이 아니라 사사로운 염지 불과 원찰(願刹)을 매개로 출현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신비현상을 둘러싼 가마쿠라 무사들의 상상력과 심성은 현실세계의 균형감각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1180년대의 공전과 신비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똑같이 공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투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신비현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180년대의 공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이가 두드러졌다. 그런데 『吾妻鏡』에 따르면, 신이는 공전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사전과 ‘성전’에서도 신이는 발현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우선 ‘성전’에 즈음하여 나타난 신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2. ‘성전’과 천조대신(天照大神)

『吾妻鏡』에 보이는 ‘성전’으로는 1221년에 발발한 조큐의 난을 들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조적(朝敵)으로 규정된 막부는 관적(官賊)의 구도를 넘어서는 논리와 대의명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⁶⁾ 그런데 『吾妻鏡』에 따르면 그것은 막부에 대한 추토선지가 발령되기 앞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사료 4> 『吾妻鏡』 1221년 3월 22일조

하타노 지로 도모사다[波多野次郎朝定]가 이품(二品)의 사자로 이세대신궁[伊勢大神宮]으로 출발했다. 오늘 새벽녘에 이품이 꿈

25) 『吾妻鏡』 1248년 2월 5일조.

26) 이와 관련하여 남기학은 조큐의 난 이후 막부의 천황관이 크게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기학(2017), pp. 252-264 참조.

속에서 계시를 얻었다. 크기가 2장(丈) 정도 되는 거울이 유이가 하마[由比浦] 파도 위에 떠올랐다. 그 속에 목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나는 대신궁이다. 천하를 비춰보건대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져 병사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 야스토키[泰時]가 나를 빛나게 한다면 태평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특별히 신심이 두터워졌다. 도모마사는 사관(祠官)의 외손인 까닭에 사절 임무에 응했다.

1221년 3월, 3대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의 비명횡사 후 막정(幕政)을 이끌고 있던 비구니 장군 호조 마사코[北條政子]가 이세에 관한 영몽을 얻었다. 이세의 목소리는 명백히 막부의 군사행동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조큐의 난에서 조정이 의도한 관적의 구도를 무너뜨린다. 황실의 조상신인 이세가 막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상, 막부는 결코 조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간다면, 막부를 조적으로 규정할 당대의 천황과 상황은 조상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암주(暗主)로 규정될 수도 있었다.

위의 신비현상에 대한 정보가 가마쿠라 무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吾妻鏡』에서 조큐의 난은 분명 이세의 가호 아래 치러진 ‘성전’으로 규정되었다. 즉, 전후 처리가 일단락된 시점에서는 “세상이 평안해졌다. 이는 이품(二品) 선니(禪尼)의 꿈과 부합했다.”²⁷⁾라 하여 마사코의 영몽이 환기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세가 막부군과 관군의 전투에 앞서 이미 황실을 저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계시들이 제시되기도 했다.²⁸⁾ 막부군의 승리는 예기된 사실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막부가 조정의 권위를 상대화하며 치러야 했던 전투에 즈음해서는 황실의 조상신인 이세의 신이가 나타났다. 앞서 신비현상을 들

27) 『吾妻鏡』 1221년 8월 7일조.

28) 『吾妻鏡』 1221년 윤10월 10일조.

리싼 가마쿠라 무사들의 상상력과 심성은 현실세계의 균형감각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서술했는데, ‘성전’에 즈음하여 이세의 신비현상이 등장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마쿠라 무사들은 황실의 조상신만이 관적의 구도를 전복시킬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²⁹⁾

조큐의 난에 뒤이은 ‘성전’으로는 여몽연합군과의 전투를 들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수많은 신비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³⁰⁾ 그 가운데 가장 저명한 가마키제[神風]가 이세신궁의 부속 신사였던 이세카제노야시로[伊勢風社]의 신이로 규정된 것은 상징적이다.³¹⁾ 도요아키쓰시마[豊秋津洲]가 강력한 외부 세력의 압박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본주(本主)인 이세가 선두에 서서 방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마쿠라 무사들의 균형감각은 당대인들의 공통된 감각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투의 성격에 따라 신비현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된 사전에 즈음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는 사뭇 다른 신비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9) 이는 다이라노 마사카도[平將門]의 ‘新皇’ 즉위식에 황실의 조상신인 하치만이 등장하는 『將門記』의 구절을 환기한다. 이 이야기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義江彰夫(1994), 「日本の反逆と正当化の論理」, 『知の技法』(小林康夫, 船曳建夫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30) 海津一朗(2019), 『新 神風と悪党の世紀: 神国日本の舞台裏』, 東京: 文学通信, pp. 36-49 참조.

31) 山田雄司(2009), pp. 140-141. 참고로 덧붙이면, 『鎌倉大日記』에는 ‘大風’을 이와시미즈하치만궁의 신이로 기록하고 있는데(『増補 續史料大成』別卷 鎌倉年代記・武家年代記・鎌倉大日記, p. 209), 황실의 조상신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3. 사전과 신비현상

3.1. 사전의 공공성과 신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막부군은 동국 경영에 관한 1183년 10월의 선지를 계기로 관군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전에는 반란군의 입장에서 사전을 전개했는데, 이때도 신비현상은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료 5> 『吾妻鏡』 1180년 9월 10일조

… 지난 밤 스와 상궁[諏方上宮]의 이모리자와[庵澤] 근처에 묵었는데, 한밤중에 한 젊은 여성이 이치조 지로 다다요리[一條次郎忠頼]의 진영에 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다다요리는 괴이하게 여기며 화로 앞으로 불러 만났다. 여성이 말하기를 “저는 이궁의 오하후리[大祝]인 아쓰미쓰[薦光]의 처입니다. 남편의 사자로 왔습니다. 아쓰미쓰는 미나모토 가문을 위한 기도라며 진심어린 정성을 내보이기 위해 신사의 사두[社頭]에 머문 채 기원하여 3일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방금 전 꿈속에서 꾸지나무 잎 문양[梶葉文]의 히타타레[直垂]를 입고 잿빛 털의 말에 올라탄 용사 하나가 겐지 편이라 칭하고 서쪽을 가리키며 채찍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명신이 시현[示現]하시는 바입니다. 어찌 기대할 바가 없겠습니까? 꿈에서 깬 후 (본인이 직접) 와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사두에 있는 까닭에 (저를) 보냈습니다.”라고 했다. 다다요리가 특별히 믿고 우러러 몸소 야검[野劍] 하나와 하라마키[腹卷] 하나를 구해 그 여성에게 주었다. 이 계시에 따라 곧바로 출진하여 헤이시의 아군 스가 관자[菅冠者]의 이나군[伊那郡] 오타기리향[大田切郷]의 성을 덮쳤다. 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싸우기도 전에 성에 불을 놓고 자살했다. 이에 각각 네가미[根上] 강가에 진을 치고 서로 상의하여 이르기를 “지난 밤 하

후리의 꿈이 있었고 지금 스가 관자가 멸망한 것을 생각하니 명신(明神)의 별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전원(田園)을 양 신사에 바치고 이후 자초지종을 전 무위(武衛)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

1180년 9월 가이[甲斐] 지역의 겐지 이치조 다다요리 등이 시나노[信濃] 지역에서 헤이시 세력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들은 전투에 앞서 ‘스와 상궁’ 부근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때 신관(神官)의 영몽에 접하게 되었다. 문맥 상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지만, 신관의 꿈속에 등장한 용사는 스와 대명신을 표상한다. 용사의 히타타레에 새겨진 ‘꾸지나무 잎 문양’은 다름 아닌 스와의 신문(神紋)이다. 다다요리 등은 스와 대명신의 참전을 확신하고 곧바로 출진했으며 큰 어려움 없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영몽에 이은 승전에서 신의 조화를 간취하고 토지를 기진하는 한편, ‘전 무위’ 즉 요리토모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다다요리 등은 스루가[駿河]에서 요리토모와 합류한 후 위의 신비현상을 보고했다.³²⁾

영몽에 등장한 스와는 시나노 지역의 유서 깊은 신으로, 앞서 언급한 가시마 등과 더불어 동국의 유력한 군신의 하나로 숭앙되고 있었다. 스와가 진좌하는 신사 역시 가시마사와 마찬가지로 10세기에 이르러 명신대사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이후 시나노 지역의 일궁으로 번창했다. 요컨대, 전국적으로 저명한 지역신이 신비현상을 통해 전투에 개입하는 사태는 사전에 즈음해서도 발생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전과 관련하여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스와만이 아니었다. 요리토모의 의뢰를 받아 이와시미즈 하치만궁에 머물며 기도를 하던 니치인[日胤]이라는 승려는 1180년 5월의 어느 날 밤 “살짝 잠든 사이에 보전(寶殿)으로부터 금갑(金甲)을 받는 영몽(靈夢)을 꾀다.”³³⁾ 즉,

32) 『吾妻鏡』 1180년 10월 18일조.

하치만이 내란에서 요리토모 편에 선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스와, 하치만의 신이는 앞서 도출했던 결론에 반하는 것 같다. 즉, 전투의 성격에 따라 신비현상에 차등이 존재했다는 2장의 결론에 따른다면, 사전에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신들이 등장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신들이 사전에 개입하는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상식적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공전이든 ‘성전’이든 사전이든 전투의 주체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신불의 작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중세인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신과 부처를 총동원하려 했을 것이다. 반란군의 입장에서 다이라 가문에 맞서고 있던 요리토모와 휘하 장수들은 더욱 절실하게 신비현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위에서 살펴본 스와, 하치만의 신이는 우선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마쿠라 무사들은 분명 현실세계의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신비현상을 바라보는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스와, 하치만의 등장을 전투의 성격과 신비현상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이하, 오슈 전투의 사례를 실마리로 삼아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슈 전투는 공전과 사전의 경계선상에 존재했던 전투이다. 즉, 형식은 공전이었지만, 실태는 사전이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나타난 신비현상은 사적이고 지역적인 성물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사전의 면모를 지닌 공전에 즈음하여 나타난 신비현상이 이와 같았다면 정반대의 구도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공전의 면모를 지닌 사전에 즈음하여 저명한 신들의 신비현상이 나타나는 구도도 상정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스와, 하치만이

33) 『吾妻鏡』 1181년 5월 8일조.

사전에 등장하는 사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80년대 내란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전개된 막부군의 전투는 형식면에서 명백히 사전이었다. 전투의 원동력은 다이라 가문에 대한 사적인 원한, 그리고 많은 경우 그와 연동된 각 지역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었다.³⁴⁾ 그러나 막부군에게도 대의명분은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거병의 근거는 모치히토왕의 영지(令旨)였다. 그런데 모치히토왕은 영지에서 덴무[天武] 천황과 쇼토쿠[聖德] 태자의 고사를 환기하며 왕법과 불법을 업신여기고 파괴한 다이라 가문을 추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당대의 보편가치인 왕법과 불법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모치히토왕은 자신의 싸움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영지를 근거로 거병하고 군사행동을 전개한 요리모토와 동국 무사들 역시 자신들의 전투가 지니는 공공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吾妻鏡』의 1180~1182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國敵’³⁶⁾, ‘義兵’³⁷⁾과 같은 표현이 산견되며, 이세신궁에 보낸 요리토모의 기원문에서는 “조적(朝敵)을 막아 세무(世務)를 원래대로 일원(一院)께 돌려드리고”라는 문구도 확인된다.³⁸⁾

1180년대의 사전은 일본열도를 무대로 하는 광역의 내란과 접속되었다. 그리고 광역의 내란이라는 판도 위에서 막부는 정치권력으로서 응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출발한 전투는 점차 공적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용어들로 분식(粉飾) 되어가지 않을

34) 川合康(2004), 第1部 참조.

35) 『吾妻鏡』 1180년 4월 27일조.

36) 1180년 8월 4일조, 1180년 11월 8일조.

37) 1180년 8월 13일조, 1180년 12월 1일조, 1182년 9월 25일조.

38) 1182년 2월 8일조 참조.

수 없었다. 광역을 지배하고 일본열도 전역을 시야에 두는 정치권력이 특정 지역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싸운다는 주장을 펼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1180년대의 사전은 내란의 추이에 따라 공공성을 띠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스와, 하치만과 같은 저명한 신들이 등장할 만한 환경은 이렇게 조성되었던 것이다.

3.2. 신비현상의 로컬화

이제 1190년대 이후로 눈을 돌려보자. 『呑妻鏡』에 기록된 이 시기의 사전으로는 히키씨[比企氏]의 난, 와다[和田] 전투, 호지[寶治] 전투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전투는 공통적으로 가마쿠라를 무대로 한 시가 전이었으며, 그 여파도 대략 동국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 광역의 내란을 배경으로 전개된 1180년대의 사전과는 사뭇 다른 면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비현상에서도 모종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선 히키씨의 난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며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203년 1월 2일, 2대 장군 미나모토노 요리이에[源賴家]와 그 장자인 이치만[一幡]이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을 방문하여 폐물을 봉납했다. 신에게 바치는 가마가 펼쳐지던 찰나 돌연 하치만이 강립했다.

<사료 6> 『呑妻鏡』 1203년 1월 2일조

… (하치만) 대보살께서 무녀에게 탁선하시기를 “금년 중 관동에 일이 있을 것이다. 와카기미[若君]는 가독을 이을 수 없을 것이다. 언덕 위의 나무는 뿌리가 이미 말라버렸는데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가지 끝의 푸름을 믿고 있다.”라고 했다. …

1203년 당시 장군 가문의 후계 구도는 미묘했다. 장군 요리이에와 히키 가문 출신인 와카사노쓰보네[若狹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치만은 유력한 차기 장군 후보였다. 위의 사료에 보이는 ‘와카기미’가 바로 이치만이다. 그런데 ‘와카기미’ 이치만이 차기 장군으로 등극한다면 막부 내에서는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간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온 호조 가문이 장군의 외척이라는 위상을 상실하고 히키 가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터였기 때문이다. 다만, 호조 가문에게도 활로는 있었다. 요리이에의 동복(同腹) 아우, 즉 1대 장군 요리토모와 호조 마사코 사이에서 태어난 센만[千幡]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센만이 차기 장군으로 등극한다면, 호조 가문의 정치적 위상은 부동의 것이 될 터였다. 이처럼 장군 가문의 후계 문제에서 이해관계를 달리 했던 히키 가문과 호조 가문은 결국 1203년 9월 시가전을 벌이게 된다. 이치만은 살해되었고, 요리이에는 숙청되었다.³⁹⁾

<사료 6>은 이 같은 불상사를 하치만이 예고했음을 전해주는데, 이에 호응하듯 히키씨의 난에 즈음해서는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에서 괴이가 잇따라 발생했다. 즉, 6월 30일에는 보전의 마룻대에 ‘唐鳩’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갑자기 땅에 떨어져 죽었으며,⁴⁰⁾ 7월 4일에는 경소(經所)와 회랑이 맞닿은 곳 위에서 집비둘기[鴿] 세 마리가 땅에 떨어져 그 중 한 마리가 죽었다.⁴¹⁾ 또 7월 9일에는 알가봉(關伽棚) 아래에서 머리가 잘린 채 죽어 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⁴²⁾

39) 히키씨의 난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柏美恵子(1979), 「比企氏の乱と北条時政」, 『法政史論』 7, 東京: 法政大学大学院日本史学法政史論会; 永井晋(1997), 「比企氏の乱の基礎的考察」, 『埼玉地方史』 37, 浦和: 埼玉県地方史研究会.

40) 『吾妻鏡』 1203년 6월 30일조.

41) 『吾妻鏡』 1203년 7월 4일조.

42) 『吾妻鏡』 1203년 7월 9일조. 이상, 1203년 6~7월의 괴이는 『鶴岡社務記録』에서도 확인된다[豊田武·岡田莊司校注(1979), 『神道大系』 神社編20 鶴岡, 東京: 神道大系編纂会, pp. 7-8].

장군 가문, 나아가 막부의 불상사가 예기되는 상황에서 하치만과 그 사자인 비둘기의 신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비현상의 무대가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이라는 점이다. 1180년대의 내란에서 이와시미즈 하치만궁이 등장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요컨대, 히키씨의 난의 사례는 특정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전에 즈음해서는 지역색 짙은 신비현상이 뒤따른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히키씨의 난과 마찬가지로 가마쿠라를 무대로 전개된 와다 전투, 호지 전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와다 전투의 사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자.

와다 전투는 호조 가문의 권력 독점화에 대한 와다 가문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⁴³⁾ 1213년 5월 2일 오후 4시 무렵에 시작된 전투는 밤새 이어졌다. 이튿날 장군 사네토모의 명령에 따라 막부군이 증원되기도 했지만, 반 막부군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조 야스토키[北條泰時]는 법화당(法華堂)에 자리 잡은 지휘부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장군이 내린 결론은 기도였다.

그런데 사네토모가 노래를 곁들인 기원문을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에 봉납했을 때, 마침 가마쿠라의 남서쪽에서 이동 중이던 반 막부군의 맹장 쓰치야 요시키요[土屋義清]가 북쪽에서 날아온 유시(流矢)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 화살은 하치만이 쓴 ‘神鏢’으로 간주되었다.⁴⁴⁾ 쓰루가오카에 진좌한 하치만이 위기에 빠진 후손을 구해줬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다. 히키씨의 난에서 등장했던 쓰루가오카 하치만궁이 다시금 등장한 점이 주목된다.

신비현상의 지역색은 1247년의 호지 전투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미

43) 岡田清一(1989), 「執權制の確立と建保合戦」, 『中世日本の諸相』 下卷(安田元久先生退任記念論集刊行委員会編), 東京: 吉川弘文館 참조.

44) 『吾妻鏡』 1213년 5월 3일조.

우라[三浦] 가문과 호조 가문이 맞선 호지 전투에 즈음해서는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국 지역에서 전투의 전조(前兆)가 적잖이 나타났다. 예컨대, 유이가하마의 조수(潮水)가 핏빛으로 변했으며,⁴⁵⁾ 가마쿠라에 노란 나비 떼가 나타났다.⁴⁶⁾ 또 동북지역의 쓰가루[津輕] 해안가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생긴 큰 물고기가 발견되었다.⁴⁷⁾ 앞서 살펴본 히키씨의 난, 와다 전투의 사례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특정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전과 지역색 짙은 신비현상의 연관성은 명백해 보인다. 가마쿠라 무사들의 균형감각은 사전에서도 재삼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호지 전투에 즈음하여 나타난 괴이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된다. 즉, 신비현상의 선례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시각을 조금 비틀어 이 문제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4. 동국의 고실(故實)과 가마쿠라 막부

곧바로 관련 사료들을 살펴보자.

<사료 7> 『吾妻鏡』 1247년 3월 17일조

노란 나비가 무리지어 날아다녔다<폭은 대략 1장(丈)이었고 3열 정도를 이뤘다>. 가마쿠라를 가득 채웠다. 이는 병혁(兵革)의 징조였다. 조헤이[承平] 때는 즉 히타치[常陸]·시모쓰케[下野], 덴기[天喜] 때는 또 무쓰[陸奥]·데와[出羽] 4개국 사이에 이 괴이가 있어서, 마사카도[將門]·사다토[貞任] 등이 전투를 일으켰다. 그

45) 『吾妻鏡』 1247년 3월 11일조.

46) 『吾妻鏡』 1247년 3월 17일조.

47) 『吾妻鏡』 1247년 5월 29일조.

런데 지금 이 이변이 나타났다. 또다시 혹은 동국에 병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로(古老)가 의심하는 바였다.

<사료 8> 『吾妻鏡』 1247년 5월 29일조

미우라 고로[三浦五郎] 좌위문위(左衛門尉)가 좌친위(左親衛)님께 가서 말하기를 “지난 11일 무쓰국[陸奥國] 쓰가루[津輕] 해변에 큰 물고기가 밀려왔습니다. 그 모양이 꼭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전 유이가하마의 바닷물이 붉은 색이었던 것은 혹은 이 물고기가 죽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무렵에 오슈[奥州] 해안가의 파도가 붉은 것이 다홍빛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이 일에 대해 곧 고로(古老)에게 물으셨는데, (고로는) 선례가 불쾌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소위 분치[文治] 5년 여름에 이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같은 해 가을 야스히라[泰衡]가 주륙되었습니다. 겐닌[建仁] 3년 여름에 또 밀려왔는데, 같은 해 가을 좌금오(左金吾)께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겐포[建保] 1년 4월에 출현했는데 같은 해 5월 요시모리[義盛]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세상에 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위의 두 사료는 호지 전투에 즈음하여 출현한 괴이의 선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료 7>은 다이랴노 마사카도[平將門]의 난과 전구년(前九年) 전투에 즈음하여 출현한 노란 나비 떼를 예시하고 있으며, <사료 8>은 오슈 전투, 히키씨의 난, 와다 전투에 즈음하여 출현한 큰 물고기를 환기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괴이에 대처하고자 선례를 검토하는 것은 유별난 움직임이 아니다. 그러나 오로지 동국의 선례만이 참조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막부가 참조할 만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료 7>의 노란 나비 떼의 경우 1220~30년대에 히에이잔[比叡山]에 출현하여 교토 귀족사

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으며 1170년대의 선례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⁸⁾ 요컨대, 위의 사료들은 가마쿠라 막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신비현상에 관한 동국의 독자적인 고실이 형성되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조큐의 난에 즈음하여 확인된다.

<사료 9> 『吾妻鏡』 1221년 6월 8일조

… 술시에 가마쿠라에 벼락이 쳐서 우경조(右京兆) 저택의 부엌 건물에 떨어졌다. 필부 한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집주인이 크게 두려워하여 대관령(大官令) 선문(禪門)을 불러 상의하여 이르기를 “무주(武州) 등의 상락(上洛)은 조정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괴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운명이 줄어든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선문이 이르기를 “군신의 운명은 모두 천지가 주관하는 바입니다. 꼼꼼이 이번 일을 살펴보건대 그 시비(是非)는 천도(天道)의 결단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일은 관동(關東)에서 가례(佳例)가 아니겠습니까? 분지[文治] 5년 고(故) 막하장군(幕下將軍)께서 후지와라노 야스히라[藤泰衡]를 정벌하실 때 오슈 군진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선례가 분명하지만 각별히 점을 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지카모토[親職], 야스사다[泰貞], 노부카타[宣賢] 등이 가장 길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1221년 6월, 교토 근방에서 막부군과 관군의 전투가 막 시작되던 무렵, 호조 요시토키의 저택에 벼락이 쳤다.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한 요시토키는 막부의 속로 오에 히로모토[大江廣元]에게 상담했다. 히로모토는 천도를 거론하며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오슈 전투 때 막부군 진영에 벼락이 친 선례를 들며 오히려 좋은 징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48) 池田浩貴(2015), pp. 14-16 참조.

천도를 동원하여 조정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히로모토의 태도는 이 세에 관한 마사코의 영몽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본장의 취지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가 벼락의 선례로 오슈 전투 시의 벼락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1184년 막부에 투신하기에 앞서 교토에서 20년 남짓 실무 관료로 활동했던 히로모토는 벼락에 관한 여러 가지 선례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유독 오슈 전투의 사례를 거론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 다른 지역에서 벼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히로모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막부가 위치한 관동 지역에서 벼락이 지니는 함의였다. “관동(關東)에서 가례(佳例)가 아니겠습니까?”라는 히로모토의 반문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비현상에 관한 기억의 출발점이 오슈 전투라는 점이다. <사료 8>에서도 큰 물고기의 이변은 우선 오슈 전투의 전조로 기억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슈 전투는 11세기의 전투에 관한 기억을 소환하며 막부의 정체성을 확인한 전투였다. 오슈 전투를 통해 재삼 확인된 것은 막부가 미나모토 가문의 장군과 무사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국의 정권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비현상에 관한 동국의 독자적인 고실이 오슈 전투를 원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오슈 전투, 조큐의 난에 즈음하여 관찰된 벼락은 이후 주요 선례로 참조되었다. 예컨대, 1230년 장군의 거처에 떨어진 벼락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나카하라 모로카즈[中原師員]는 “고(故) 우대장가(右大將家)께서 오슈를 공략하셨을 때 군진에 벼락이 내리쳤으며, 조큐의 병란 때 우경조(저택의) 부엌 건물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이는 모두 길사(吉事)였습니다. 그렇다면 괴이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길사로 정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⁴⁹⁾ 동국의 고실은 이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전투와 신비현상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가마쿠라 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독자적인 고실의 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중세 무사들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해명하고자 했다. 검토의 결과 두드러진 것은 중세 무사들의 균형감각과 가마쿠라 막부의 위상이었다. 일견 무질서하고 우연한 것으로 보이는 신비현상은 실은 전투의 형식과 실태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신비현상들은 가마쿠라 막부의 주위에서 차곡차곡 쌓여 유사시에 참조 가능한 동국의 선례로 기능했다. 전자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가마쿠라 시대의 전투와 신비현상의 관계 일람

시기	1180년대의 내란			1203	1213	1221	1247
	1180/8 ~1183/10	1183/10 ~1185/3	1189				
명칭	겐페이[源平] 전투		오슈 전투	히키씨의 난	와다 전투	조큐의 난	호지 전투
성격	사전	공전	공전	사전	사전	‘성전’	사전
범위	일본열도	일본열도	동국	가마쿠라	가마쿠라	일본열도	가마쿠라
신비현상	광역의 신	광역의 신	사적/지역적 성물	지역의 신	지역의 신	광역의 신	지역의 신비현상

49) 『吾妻鏡』 1230년 6월 14일조.

공전과 사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현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본 논문에 대해, 애초에 설정한 공전/사전 등의 구분이 무의미해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형식논리의 면에서 제기될 만한 비판이지만, 형식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세사회의 실태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모종의 기준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행동양식과 사상이 관찰되지만 때때로 그 기준선을 넘나드는 행동양식과 사상도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되는 시대,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겹쳐서 등장하기도 하고 부단히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던 시대가 중세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공전이지만 다분히 사전적인 성격을 띠는 전투, 사전이지만 공공성을 띠는 전투, 즉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전투를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그 같은 유연한 파악 방식을 통해 중세사회의 실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 추출한 중세 무사들의 균형 감각이 중세인 공통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설화들을 살펴보면, 현실세계의 위계질서가 사후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에 복류하는 심성이 본 논문에서 언급한 균형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향후 귀족들의 일기도 참조하며 신비현상에 대한 중세인의 인식을 조감하고, 그로부터 무사 고유의 정신세계를 다시금 세밀하게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이 일본열도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횡적 비교사라면, 14세기 이후의 상황을 살피는 작업은 종적 비교사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략의 열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33년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 이후 중세 무사들의 구심점은 일단 교토에 형성되었으며, 뒤이어 일본열도 곳곳에 형성되었다. 이 같은 공간상의 전환은 전투의 성격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점차 공사(公私)의 경계선상에 걸친 전투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근본적인 원인

은 이념상으로 쪼개질 수 없는 공(公)이 세포 분열하듯 쪼개져 나가는 데 있었다. 그 사이 장원제는 무너져 내렸으며 무사단의 편성 원리도 크게 전환되었다. 중세 무사들이 딛고 서 있던 물질 토대가 질적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한편 남북조시대를 경계로 중세인들은 타계로부터의 메시지에 소홀해지기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감안하면,⁵⁰⁾ 신비현상의 양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세기 이후 가파른 시대 전환 속에서 전투와 신비현상의 상관성은 모종의 굴절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비현상에 관한 동국의 독자적인 고실 역시 집합과 이산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밝혀나가고자 한다.

50) 이케가미[池上]는 『太平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령의 발호를 부정하고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남북조시대 이후 중세인들의 면모를 강조한 바 있다. 池上良正(2003), 『死者の救済史: 供養と憑依の宗教学』, 東京: 角川書店, 第一章~第三章을 참조.

참고문헌

【자 료】

黑板勝美編(1980), 『吾妻鏡』, 吉川弘文館.

【논 제】

남기학(2017), 『가마쿠라 막부 정치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이세연(2014), 「일본 중세무사들의 원한과 화해」, 『일본사상』 27, 한국일본사상사학회.

青木孝(1968), 「吾妻鏡の成立に關する一試論: 夢想告・託宣の記事をめぐって」,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22, 東京: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

朝倉弘(1995), 「平安時代の多武峯寺と興福寺: 対立・抗争について」, 『奈良大學紀要』 23, 奈良: 奈良大學.

池上良正(2003), 『死者の救済史: 供養と憑依の宗教学』, 東京: 角川書店.

池田浩貴(2016), 「『吾妻鏡』における八幡神使としての鳩への意味付け」, 『常民文化』 39, 東京: 成城大學常民文化研究会.

_____ (2015), 「『吾妻鏡』の動物怪異と動乱予兆」, 『常民文化』 38, 東京: 成城大學常民文化研究会.

入間田宣夫(1998), 「鎌倉武士団における故実の伝承: 「過去」の支配をめぐって」, 『中世武士団の自己認識』, 東京: 三弥井書店.

江部陽子(1969), 「鶴岡八幡宮發展の三階梯と源頼朝の信仰」, 『神道学』 63, 島根: 神道学会.

岡田清一(1989), 「執權制の確立と建保合戦」, 『中世日本の諸相』 下卷(安田元久先生退任記念論集刊行委員会編), 東京: 吉川弘文館.

岡康史(2011), 「住吉大神のご神格: 「軍神」を中心に」, 『神道史研究』 59(2), 伊勢: 神道史學會.

海津一朗(2019), 『新 神風と悪党の世紀: 神国日本の舞台裏』, 東京: 文学通信.

柏美恵子(1979), 「比企氏の乱と北条時政」, 『法政史論』 7, 東京: 法政大學大学院日本史学法政史論會.

- 川合康(2004), 『鎌倉幕府成立史の研究』, 東京: 校倉書房.
- 谷口榮(2007), 「鎌倉を取り巻く生き物たち」, 『吾妻鏡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 辻由美子(1982), 「『吾妻鏡』における承久の乱の前兆について」, 『大正史学』 12, 東京: 大正大学.
- 永井晋(1997), 「比企氏の乱の基礎的考察」, 『埼玉地方史』 37, 浦和: 埼玉県地方史研究会.
- 山田雄司(2009), 「鎌倉時代の怪異」, 『怪異学の可能性』(東アジア怪異学会 著), 東京: 角川書店.
- 義江彰夫(1995), 「源氏の東国支配と八幡・天神信仰」, 『日本史研究』 394, 京都: 日本史研究会.
- _____ (1994), 「日本的反逆と正当化の論理」, 『知の技法』(小林康夫, 船曳建夫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王玉玲(2012), 「『吾妻鏡』災異記事の編纂方針及び意義」, 『創価大学人文論集』 24, 東京: 創価大学.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ABSTRACT

Battles and Mysterious Phenomena of
the *Kamakura* Period

Lee, Seyun*

In this paper, I tried to take a step closer to the mentality of medieval warriors by examining the mysterious phenomena that appeared during the battles of the *Kamakura* period. Specifically, the discussion was focused on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the battles and the mysterious phenomena, and the formation of the ancient practices of *Togoku* (東國). The *Kamakura samurai* maintained the perception that mysterious phenomena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attles. *Kamakura Bakufu* became the driving force to move the mystery of *Togoku* from the oral world to the world of record. *Togoku's* own ancient practices on mysterious phenomena was formed from the memory on the Battle of *Oshu* (奥州), which confirmed the identity of the *Kamakura Bakufu*.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